

장성 나노산단에 6개 기업 204억 투자

전남·장성군·기업대표 협약 체결...투자 유치 활발 세립전자·현대에스엔지 등...일자리 250개 창출 기대

장성 나노산단에 6개 기업이 200억대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3일 오후 장성군청 상 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양수 장성군수, 세립전자 등 장성 나노산단에 입주할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투자자 실행될 경우 252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협약에 따라 세립전자는 7685㎡ 부지에 43억원을 투자해 49명 이상을 고용한다. 병장고, 세탁기, 청소기, 폼프레스 등에 사용되는 전 원 공급장치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2천만달러의 수출탑을 수상했다. 현대에스엔지는 4138㎡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해 80명 이상을 고용한다. 건물의 고층화, 고급화로 알루미늄 창호 및 단열 스테인레스 창호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다양한 금속 구조용 창호제품을 생산한다. 세립전자는 조립식 건물세트 특화 전문기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디자인과 제품을 생산한다. 주택, 공장, 창고 건축에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철골 및 강구조물의 가공, 제작, 시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세립전자는 통조림 제품의 자동화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상품 가공 및 유통 방법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자동화 설비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한다.

장성 나노산단은 장성 진원면 산동리와 남면 삼태리 일원에 2015년까지 90만2000㎡에 1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을 총망라한 최첨단 미래형 나노산단으로 조성된다. 호남고속도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물류 기반시설을 갖추고 광주 연구개발(R&D) 특구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첨단산단, 하남산단과도 연계해 기업 간 협력이 장점이.

장성 나노산단은 장성 진원면 산동리와 남면 삼태리 일원에 2015년까지 90만2000㎡에 1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을 총망라한 최첨단 미래형 나노산단으로 조성된다. 호남고속도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물류 기반시설을 갖추고 광주 연구개발(R&D) 특구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첨단산단, 하남산단과도 연계해 기업 간 협력이 장점이.



화순 백아산 '하늘다리' 명물되나

마당바위~절터바위 연결

화순군은 백아산 해발 756m 지점에 마당바위와 절터바위를 연결하는 하늘다리(사진)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연장 66m, 폭 1.2m의 하늘다리는 최대 13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강화유리 조망창(가로 40cm, 세로 1m)과 150m 길이의 테크로드가 설치돼 백아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홍익식 화순군수는 "백아산 하늘다리가 등산 명소인 백아산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 북면 온천과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군 북면에 위치한 백아산(白鵝山)은 철쭉, 단풍, 설경, 운해의 명소로 알려졌다. 지리산과 무등산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고 험한 산세 때문에 6·25 당시 빨치산의 주둔지로 이용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군, 올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대상 47명 모집

담양군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7일까지 총 47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 참여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 가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혁신도시 발전 대토론회'

나주발전연구원협동조합

나주발전연구원협동조합(원장 홍석태)은 지난 22일 오후 나주문화에 솔희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복 전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 배양자 전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근석 전 전남도 농림식품국장, 김창원 영산강벨트연구소장, 허기백 동신대 링크사업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홍석태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나주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과 영산강살리기 사업, 국립나주 박물관 개관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외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을 마련, 추진해야 기회를 싹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설 앞두고 창평 전통한과 주문 폭주

담양군 창평면의 한 전통 한과 제조업체 직원들이 23일 설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강진 마량~제주 뱃길 열린다

군, 267t급 여객선 '제트포일 코비호' 취항 업무협약

강진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미래고속(주)과 강진마량~제주항 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운항에 대한 조건부 면허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선석 승인받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10년부터 추진된 마량~제주항 여객선 취항이 4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밖에 취항할 '제트포일 코비호'(사진)는 267t급으로 정원 220명에 최고시속 83km(45노트)를 자랑한다. 비행기 엔진을 이용한 전속 여객선으로 강진에서 제주항까지 1시간 3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다. 또한 흔들림이 적어 멀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도 비교적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할 미래고속(주)은 한국 코레일, 일본 JR규슈 고속선(주)과 협력해 부산~일본항로(후쿠오카, 대마도)에 연간 40~60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국내 최대의 국제

여객 운송회사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제주 뱃길이 천년 만에 열리게 됐다"며 "승객 전용 쾌속선이라는 점에서 신규 관광객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래고속(주) 김창중 회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마량에서 여객선을 운항하게 돼 기쁘다"며 "풍부한 운항 경험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choul@

새 얼굴

"주민 우선 맞춤형 치안활동 주력"

이 유진 나주경찰서장



"주민이 우선인 맞춤형 치안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유진(55) 나주경찰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과 주민의 마음을 얻는 '주민 우선' 치안을 펼치는 데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특히 "나주는 사통팔달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하고 교통질서가 바로 선 지역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출신으로 목포고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해 강진서장,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가격중일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